

S-Oil, 울산 장애인단체에 1억원 성금

S-Oil 울산복지재단은 추석을 맞이해 8월27일 울산시장실에서 하성기 이사장, 김명규 울산공동모금회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의 장애인단체 및 시설에 지원금 1억원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.

지원금은 장애인 단체인 울산광역시 장애인총연합회 등 6곳과 장애인 재활시설인 울산장애인복지센터 등 3곳,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등 2곳에 전달될 예정이다.

지원금은 사회복지대회, 동그라미 장애인학교 운영, 달팽이학교 여름학교 운영, 신장이식 검사비 지원, 추석 맞이 백미와 생필품 지원 등 단체 및 시설의 복지향상에 사용된다.

S-Oil 울산복지재단 하성기 이사장은 “S-Oil은 기업 공유가치 중 나눔경영(Sharing)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복지재단을 설립한 만큼 울산지역의 소외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한편, 울산지역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설립된 S-Oil 울산복지재단은 2007년 6월에 공식 출범한 이후 울산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해 봉사활동과 함께 9억여원의 지원금을 각종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전달했다.

<화학저널 2008/08/28>